

백암 박은식이 본 '현실중국'과 '역사중국', 1882~1925*

유용태
서울대학교

Park Eunsik's Perspective on 'Reality China' and 'History China' in 1882-1925

Yu Yongtae**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July 4 2016
Revised Sept 21 2016
Accepted Sept 28 2016

Keywords:

Park Eunsik, perception of
China, History China,
Korea-China solidarity, East
Asian solidarity

주제어:

박은식, 중국인식,
역사중국, 한중연대,
동아시아 연대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d Park Eunsik(朴殷植, 1859-1925)'s perception of China and investigated significance of the discussion of East Asian solidarity including China. In order to analyze his perception of China, I adopted two approaches which are 'Reality China' and 'History China' to analyze Park's perception of China. Although the state of 'Reality China' he observed was declining, it was anticipated that the society would regain national power again by long cultural capability and civilian vitality. On that point, Reality China was consistently regarded as an object of solidarity with anti-imperialism and anti-Japan. Qing of 1882-94 as an example of 'History China' was considered as foreign power which impeded strenuous efforts and reformation of Korea. His perception of China and discussion of multilateral solidarity enlighten us in order that Korean diplomacy of the present time can keep a balance in the relationship with China/East Asia beyond a bias to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국문초록

이 글은 朴殷植(1859-1925)의 중국인식을 분석하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연대론의 의미를 규명하였다. 그의 중국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나는 '현실중국'과 '역사중국'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그가 본 '현실중국'의 국가는 쇠퇴하고 있었지만 그 사회는 오랜 문화적 역량과 민간의 활력에 의해 다시 국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런 만큼 현실중국은 일관되게 반제항일연대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그는 현실중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국을 비하하는 한인들에 대해서는 '고전중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을 잡아 비판하였다. '역사중국'의 예인 1882-94년의 청국을 그는 한국의 자강과 개혁을 저지한 외세로 인식하였다. 그가 중국에 대해 사대주의적 자세를 보인 한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자수자강을 중시한 것은 역사중국을 직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의 한중연대론은 한중려 3국연대론으로, 다시 인도까지 포함하는 4국연대론으로 발전하였다. 그의 중국인식과 多國연대론은 오늘날 한국외교가 미일동맹에의 편향을 넘어 중국/동아시아와의 사이에서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준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교육융합연구원 주최 학술대회 '백암 박은식 선생의 시대인식과 학문'(2015.10.30.)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완한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yyt@snu.ac.kr

I. 머리말

백암 박은식(白巖 朴殷植, 1859~1925)은 1898년부터 언론인, 교육자, 학자로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섰고 나라가 망한 이후 1911년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그 이전에는 주자학을 공부하여 잠시 하급 관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도중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의 실학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그의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있지만, 이 글은 그의 중국인식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므로 그의 활동 중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박은식의 중국인식을 살펴보면 그의 활동시기가 각 분야에서 거대한 전환기였음에 유의하고자 한다. 지역질서의 중심국과 그 운영원리가 중국중심의 조공에서 일본중심의 조약으로 바뀌고 국가체제가 전제군주제에서 군주입헌 혹은 민주공화제로 바뀌었으니, 이런 전환은 한중 양국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박은식의 중국인식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그의 사회활동의 후반부가 모두 중국을 무대로 전개되었고, 그가 한중연대를 동아시아 연대의 일환으로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다시 한 번 전환될 것인지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모종의 시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한국의 중국인식을 다룰 때, 우리는 흔히 '고전중국'과 '현실중국'으로 이원화된 구도 속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멀게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전통적 시간관념인 '고금이분법'으로부터, 가깝게는 전통과 근대를 대비시키는 근대화론적 이분법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최근 양자 사이에 그 매개체로서 '역사중국'을 하나 더 설정하여 3분법 구도로 보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¹⁾ 그에 따라 박은식의 중국인식도 그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당대의 '현실중국'과 이미 그로부터 거리를 둔 과거 속의 '역사중국'으로 나누어 보되 후자를 가까운 과거인 근대사 속의 중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좁혀서 다루고자 한다.

박은식이 중국과 관련하여 남긴 글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1898~1910년 국내에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서북학회회보인 《서우》 등에 발표한 논

1) '고전중국'은 유교경전과 중국 正史를 통해 파악된 이상화된 중국이며, '현실중국'은 인식주체가 국내외적 현실정치의 자장 속에서 파악한 현실의 중국이다. '역사중국'은 현실중국의 축적이 되 그러한 현실정치의 자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역사화된, 상당 정도 객관화된 중국이다. 3분법 구도를 취하면 '현실중국'을 '고전중국'과 직접 대비하여 지나치게 부정/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향을 줄이고 동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유용태(2015b), <현재에 이르는 길과 가능성의 유산을 찾아서: 한 중국사연구자의 자기인식>, 《歷史學報》 228집.

설들이다. 다른 하나는 망명 이후 중국(활동무대가 서간도-베이징-상하이-홍콩-상하이로 바뀜)에서 발표한 논설과 저술이다. 최초의 한중합작 언론인 《香江雜誌》(홍콩, 1913), 중국신문 《四民報》(상하이, 1921~1922), 그리고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주필(1921~1925)로 발표한 논설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한국사 관련 저술인 《안중근전》(1914), 《한국통사》(1915),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는 모두 중국에서 한문본으로 출판되었으며 거기에도 중국 관련 내용과 중국인식이 반영돼 있다. 필자는 이들 논설과 역사저술을 각각 그의 '현실중국'과 '역사중국'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박은식의 망명시기 중국인식에 관해서는 중국사학자인 배경한의 선구적인 연구가 우선 주목된다. 그가 직접 발굴한 새로운 논설에 의거하여 박은식의 공화주의의 수용과 민국(民國, 공화국)-민치주의(民治主義, 데모크라시) 옹호를 강조하였다(배경한, 2003). 그 뒤를 이어 한국학 쪽에서는 한기형과 현광호가 망명 이전 박은식의 한중일 3국연대론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와 관련지어 검토하였다(한기형, 2005; 현광호, 2009.). 그 밖에 대한제국 시기 한국 언론의 중국인식을 다룬 연구도 비교대상으로서 참고할 만 하다. 백영서는 여러 언론의 논설을 분석하여 인식주체의 정파에 따라 보인 차이를 강조하였고 노관범은 황성신문의 논설을 분석하여 시기에 따라 보인 차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거기서 인식된 중국을 천한 중국(근대화의 낙오자), 개혁의 모델, 동양평화의 일원(연대의 대상)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해 파악한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백영서, 2000; 노관범, 2013.). 개화기 한국언론에 당시 중국의 지식정보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다룬 이만열의 연구도 참고가 된다(이만열, 1996.).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현실중국'을 다룬 것이어서 좋은 참고가 되지만, '역사중국'에 대한 관심은 빠져있다. 그리고 주로 그의 논설을 분석하였을 뿐 저술까지 포괄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본고는 수시로 변화하는 '현실중국'을 넘어 역사화된 중국, 곧 '역사중국'에 대한 인식까지 보기 위해, 그의 대표적 저술인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나타난 근대 한중관계사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 때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현실중국' 인식은 1905~1925년에 한정하고 '역사중국'은 1882~1894년에 한정하여 청국의 조선속방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²⁾

2) 《朴殷植全書》上中下,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白巖朴殷植全集》全5卷, 서울: 동방미디어, 2002
는 모두 1905년 이후 자료만을 수록하였다.

II. 청국 말기의 '현실중국' 인식, 1905~1911

A. 청국의 제도개혁

박은식이 청국(淸國)의 신정개혁(新政改革, 1901~1911)에 대해 언급한 논설은 1905~1910년에 한정된다. 이는 입헌군주제 도입을 비롯한 국가 전반의 근대적 제도를 정비 수립하는 개혁인데, 1905년 11월 그는 특히 군대와 경찰제도 및 유학생 파견을 비롯한 인재육성에 대한 기대를 적극 표명하였다. 박은식은 청국이 유럽의 제도를 수용하는 개혁을 추진키로 하였다면서 다음 몇 가지를 중시하였다. 첫째, 몇 년 안에 프랑스 제도를 모방한 육해군을 창건할 것이 확실한데 이는 방어용이지 다른 계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2년 전부터 베이징에서 근대적 재판과 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내외국인의 안전을 보증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 280명의 국비유학생을 파견하였으니 이들의 귀국 후 활약이 기대된다.³⁾

박은식은 교육과 식산으로 한국의 자강을 도모해야 비로소 국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청국의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은 특별했다. 그중에도 1906년 12월 여학교의 증설을 강조한 논설이 눈에 띈다. "가정 부녀가 장래 국민양성의 가장 중요한 원기(原基)가 되는 까닭에 여학교를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 부녀가 이미 문화에 물든다면 변법유신은 저절로 일을 반으로 줄이고 성과를 두 배로 늘리게 될 터이니 ... 문명의 어머니(文明之母)와 문명의 부녀(文明之婦)가 국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주의 부패는 사람들이 다 아는 바여서 (만주정부가) 학교의 증설도 문명을 향한 진보도 자부할 수 없다 ... 각 향진(鄉鎭)에는 관립학교가 하나도 없고 ... 성도(省都)에도 여학교는 전무하다."고 하였다.⁴⁾ 여성교육이야말로 문명개화와 입헌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초이므로 이를 위한 개혁이 시급하나 청조의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다.

그의 논설에는 청조의 이같은 제도개혁에의 기대와 함께 관리의 탐학으로 쇠퇴하는 중국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다. "현재 지나(支那)의 정형으로 보건대 4만리의 비옥한 영토와 4억의 총명한 인구를 갖고서도 국권이 이처럼 위축되고 사회가 이처럼 문란한 것은 관리의 탐욕풍조(貪風) 때문이다 ... 이러한 탐욕풍조를 한국에 비추어 보면 가히 동일한 기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양국이 이 탐욕풍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와 국민은 비록 절멸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⁵⁾

3) 〈淸國注意〉, 《大韓每日申報》 1905.11.30.

4) 〈滿報譯載後識〉, 《大韓自強會報》 6號, 1906.12, 《白巖朴殷植全集》 5卷, 332~334면.

청조 국가의 탐폰을 비판하는 한편에서 박은식은 민간의 의로운 노력을 예의 주시하고 기대를 보였다. 위의 여학교 증설 필요성을 역설한 논설은 하얼빈의 한 독지가가 상회(商會)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여학교를 개설한 것을 "최고의 영예로운 행동"으로 평가하면서 청조정부의 여자교육 현황이 기대 이하임을 지적한 것이다. 거기서 이미 정부의 개혁이 민간의 노력에 못 미침을 비판하는 논조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듬해 텐진에 두 개의 열보사(閱報社)가 설립되어 행사과 인력거꾼 등 "하등사회"를 대상으로 백화보(白話報)를 읽게 하거나 글자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내용을 강학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여기에 "풍조의 개화는 마땅히 하등사회로부터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⁶⁾ 여기서 그가 청국의 현실을 '국가'(state)와 '민간사회'(society)로 구분해 양면을 각기 파악하고 있음은 특히 주목된다. 약한 국가 속에서도 민간 스스로의 자강 노력으로 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다시 강한 국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고인 것이다.

이상을 근거로 박은식이 당시 입헌군주제를 향한 청국의 개혁을 한국 개혁의 모델로 간주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는 당시의 대표적인 언론인으로서 황성신문(1898년 창간)과 매일신보(1904년 창간)의 주필을 번갈아 맡았는데, 학계에서는 전자를 자강개혁론의 온건파로, 후자를 급진파로 구분한다.⁷⁾ 통감부의 검열을 받는 황성신문과 외국인 소유라서 검열을 피할 수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의 논조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그런 구도 속에서 전자는 1905-10년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면서 청국을 개혁모델이자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근대교육과 하등사회의 문명개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병항쟁을 적극 지지한 그의 견해는 황성신문이 우민관에 의거해 의병항쟁을 비롯한 민중역량을 불신한 것과 다르며,⁸⁾ 논리상 입헌군주제보다는 인민주권의 공화제에 더 친화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구분법에 따르면 이는 급진개혁론에 속한다. 실제로 박은식은 두 신문의 지면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그 밖의 다른 언론 매체(《西友》, 《西北》 등)와 사회단체 설립 및 교육 사업을 통해 이런 도식적 틀을 뛰어 넘는 사상적 변화를 보였다.

5) <論支那貪風戒韓國官吏>, 《大韓每日申報》 1906.4.18

6) <清報譯載後識>, 《西友》 5號, 07.4, 《白巖朴殷植全集》 5卷, 355~356면.

7) 이런 구분법은 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69-98면 참조. 그런데 박은식이 언제 매일신보에 재직했는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1904년-1906년설, 1905-07년설, 1905-1910년설이 있다.

8) 박은식은 당시 실력양성운동과 의병항쟁을 상호 관련지어 병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의병항쟁을 최고의 애국운동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21-22면.

B. 청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

청국을 한국 개혁의 모델로까지 간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은식은 청국에게 한국독립을 위한 외교적 역할을 기대하였다. 1907년 1월 그는 향후 청국이 일본과의 회담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기해 조약에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 근거로 그는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일본이 청국에게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라고 요구해 이를 명시했고 그 후의 여러 조약에서도 이를 변경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였다.⁹⁾ 이는 한국이 을사보호조약(1905)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건에서의 기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청국 대표가 참가했을 때 한국대표는 회의장에 입장할 권한도 없었으며 청국대표가 이를 도울 수 없었다. 중국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독립을 도운 것은 1943년 카이로회담 이후의 일이다.

러일전쟁 당시 중국 언론은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친 후 만주를 중국에 반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당시 일본의 침략성을 간파하고 이런 여론에 경종(警鐘)을 울리는 언론은 거의 없었는데 《경종일보》(상하이)가 예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다(유용태, 2006.). 그런데 박은식은 1905년 12월 중국이 이미 일본의 침략성을 간파하고 있어서 중일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본이 만주를 중국에 환부한다는 약속도 한국의 독립을 보전할 것이라는 약속과 같이 후안무치한 사기다. 중국은 일본이 한국을 기만한 방식으로 중국을 기만해 잠식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으므로 중일 우호는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¹⁰⁾ 이런 판단은 당시 한중 양국 모두에서 극히 드문 통찰이었는데, 그가 《경종일보》 구해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일본의 침략성을 꿰뚫어보면서도 청국과 일본을 함께 동아시아3국연대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국권회복을 위해 만국공법과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자수자강론과 3국연대론을 펼쳤다. 그의 현실인식과 대응은 1905년 이후 자강론에서 연대론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의 연대론은 줄곧 자강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자수자강론은 한국 스스로 부패척결의 혁신을 통해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 국력을 배양하자는 주장이다. 한청일 3국연대론은 1880년대 이래 러시아의 동진에 공동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일본의 아시아주의자들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고 한·청과 베트남의 일부 식자층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각기 나름의 필요와 이해타산에 의거해 수용한 주장이다. 그는 한청일 3국 중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둘도 무너질 터이니 3국의 공고한 단결로 동양평화를 수호하자고 주장하였다. 3국은 지리·인종·문화적으로 비슷하니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항해

9) 〈滿洲內日本〉, 《大韓每日申報》 1907.1.26.

10) 〈清日條約〉, 《大韓每日申報》 1905.12.22.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국연대론의 실상은 3국 3색이었다. 박은식을 포함한 한국의 인사들은 그것을 3국의 독립을 전제로 하는 대등한 연대로 인식하였으나 대다수 일본인의 그것은 일본을 지도자 혹은 맹주로 하는 팽창지향의 의도를 숨긴 연대였으며 청국의 그것 역시 중화주의의 연장선에 있었으니 한국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심지어 일국 안에서도 인식주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달랐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논의된 각종 연대론이란 본래 국권팽창이든 국권수호든 국민국가의 일국사적 문제의식에 기초하면서도 언어적으로만 동아연대라는 외피로 포장된 경우가 많았다(한기형, 2006, pp. 174-175.). 그런 만큼 국력의 자강 없이 연대론에 몰입할 경우 그 결과가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당시 그가 이런 차이를 간파하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는 3국이 공유한 유교문화를 연대론의 이념적 기초로 간주하였다. 이에 그는 1909년 10월 동양평화의 이념기초로 대동교(大同教)를 창시하였다. 유교의 이상인 대동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일치단결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그 실천방안을 양명학의 지행합일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오가키 다케오를 매개로 일본의 양명학회와도 교류하였다.¹¹⁾

당시 실력양성론 계열의 다수 인사가 일제의 침략적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연대론에 기댄 것과 달리 박은식은 일제의 침략성을 꿰뚫어 보면서도 연대론을 견지했으니 특별한 설명을 요한다. 그가 일본의 침략성을 직시하면서도 이처럼 3국연대론을 주장한 것은 일본의 한국강점 불가론과 연관돼 있다. 보호국화, 군대해산과 고종황제의 강제퇴위, 의병항쟁에 대한 무력진압 등으로 한국의 국권이 단계적으로 피탈되어 가던 1905년 10월-1910년 1월에도 박은식은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 하지만 불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그 근거는 한국 국민의 독립정신, 러시아의 견제, 열강의 반대 등 세 가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실로 동양의 추요(樞要)이므로 만일 어느 일국이 이를 독탐(獨貪)하면 세계 만국이 군기(群起)하여 다룰 것은 필연지세라 ... 일본 역시 독립(獨力)으로 버티기 어려우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바이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 및 만주 침략정책은 러·미와 갈등을 키워 그 반발을 초래할 터이니 일본은 이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한국에 대하여 소리(小利)를 버리고 대의(大義)를 발표"하라고 촉구하였다.¹²⁾ 일본의 한국병합은 실현될 수 없으니 침략정책을 포기하고 동아3국연대라는 대의의 길로 나서라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이익균점을 위한 열강의 경쟁이 세력균형을 초래해 일본의 한국병합을 저

11) 유교문화에 기초한 그의 3국연대론은 1906년부터 서울에 와서 활동하던 오가키 다케오로부터 영향받았다. 오가키는 통감부가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활용한 일종의 사상적 미인계였다는 일본인의 연구가 있다. 김도형(1995),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지식산업사, 71면.

12) 〈韓日交誼〉, 《大韓每日申報》 1905.11.29; 〈時局的 現狀〉, 《皇城新聞》 1909.12.25; 〈時局에 대하여 猛省함이 可함〉, 《皇城新聞》 1910.1.9.

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크게 빗나갔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오늘날 우리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드리우는 중대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민중역량에 대한 불신과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실력양성운동 일반의 계급적 한계로 간주한다(강만길, 2003, p.239). 그러나 이런 계급환원주의는 사상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봉쇄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이를 그의 오관이라 한다면 그에 이르게 된 사상·의식상의 요인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인종주의적 이분법에 기댄 동서대비의 세계인식을 넘어서지 못해 일·영미의 제후 가능성을 간과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정문상, 2004, p.57). 특히 19세기 말-20세기 초 영미는 일본을 사주해 반러의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동아의 연대와 단결을 방해하고 분열을 획책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점들을 놓쳤을까? 그 역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자수자강론을 가다듬었음에도 그의 사상 의식상 유교 특유의 문화주의는 강렬하게 지속되었다. 그로 인해 자수자강론의 내셔널리즘과 3국연대론의 이념기초인 유교(대동교)의 문화주의 간의 구분이 모호하였다. 전자는 사회진화론이 당연시하는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삼는데 반해 후자는 경쟁의 종식과 공존을 추구한다. 양자 사이의 모순과 괴리가 그의 빛나간 전망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

그리고 이런 괴리는 박은식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와 세계관의 일대 전환기였던 당시 유교적 문화주의 전통의 유산이 특별히 강렬했던 한중 양국 지식인들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상적 곤경이기도 하다. 덜 위협적인 상대를 골라 연대한다는 “취경”(取輕)의 논리가 이를 말해준다. 량치차오를 비롯한 중국의 변법개혁파가 1898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성을 인식하고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되는 영국·일본과 연대하여 더 위협적인 러시아에 대항하려고 한 것이 그 선례이다(민두기, 1985, pp.260-263). 박은식이 일본과의 연대를 주장한 것도 취경론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한 환상과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관이며 일본의 한국병합 이후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오관이 아니라고 보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다. 박은식이 일본을 균질적인 하나의 통일체로 보지 않고 국가권력과 민간사회로 나누어서 전자의 침략성을 간파하고 있었으면서도 후자와의 교류협력에 의거한 연대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그가 청말의 현실중국을 ‘국가권력·민간사회’로 구분해 인식하는 두 개의 눈을 가졌음을 확인한 바 있거니와 이것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님은 다음의 논설에서 알 수 있다.

13) 김기승은 이 모순에 대하여, 자강론을 인정하고 그 속에 있는 진화론적 경쟁의 폐해를 성찰해 대동론으로 제어하려 한 것으로 설명하고, 그로 인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비판의식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는 김기승의 말대로 대동교의 일부 간부들이 한일병합 이후 친일로 돌아선 배경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박은식 자신이 끝까지 항일자세를 견지한 사실과 충돌함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김기승(1987), <백암 박은식의 사상적 변천과정: 대동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14집, 30-31면; 김기승(2010), <박은식의 민족과 세계인식>, 《한국사학보》 39집, 199-203면.

1907년 그는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국가가 국가다운 까닭은 정계와 사회의 사업을 병진하여 흥륭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계상의 사업은 통할(統轄)에 있을 뿐이고 사회상의 사업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오늘날의 국가는 특히 사회의 역량에 의거한다.”고 “정계”와 “사회”를 구분하고 후자를 더 중시하였다.¹⁴⁾ 이 때 “사회”(社會, 社와 會 모두 단체를 의미)란 일반 인민이 상호 결합한 농회·상회 같은 자율적 결사를 지칭하였다. 여기서의 “정계”는 국가권력에 해당하고 “사회”는 민간사회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나누어 접근하는 관점에서 그는 청국과의 관계에서 그 국가권력의 부패와 무능에 실망하면서도 민간사회의 활력을 믿고 연대를 추구하였듯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국가권력의 무도함과 침략성을 비판하면서도 그 민간사회(양명학회)와의 교류협력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후인 1919년에도, 그는 일본을 제국주의세력과 한국의 독립을 바라는 민간인으로 구분해 전자의 타도와 배척을 추구하되 후자와의 우호친선을 호소하였다.¹⁵⁾ 이런 사고는 병합 전이라면 더욱 용이했을 것이다.

Ⅲ. 민국 초기의 '현실중국' 인식: 1912~1925

A. 민국공화제에 대한 인식

박은식은 애국계몽운동을 펼치다가 일제의 신민회(新民會) 회원에 대한 검거가 심해지자 1911년 6월 서간도 환인(桓因)으로 망명하였다. 청국은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2월에 걸친 음력 '신해'년의 혁명(신해혁명)으로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에 의해 대체되었다. 만주족 주도의 전제군주제가 한족 주도의 민주공화제로 전환된 것이다. 1914~1916년 위안스카이(袁世凱)는 황제제도 부활을 추진하다가 국내외 반대여론에 부딪혀 사망하였고 1917년 장쑤(張勳)의 복벽운동도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공화제는 중국의 되돌릴 수 없는 국체로서 굳어졌다. 그 와중에 일본의 중국침략은 1915년의 '21개조 요구'로 상징되듯이 점차 심화되어 갔고 급기야 중국인의 전국적 항일운동인 1919년 5·4운동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국현실에서 박은식은 공화국의 성립과 군벌의 민주공화정 파괴에 맞서 민국을 옹호하며 민치주의를 옹호하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그가 공화제를 옹호한 것은 국가의 멸

14) 〈敬告社友〉, 《西友》2號, 1907.2, 《白巖朴殷植全集》5권, 336면.

15) 金致甫·朴熙平·朴殷植, 〈大韓國民老人同盟團致日本政府書〉(1919.6), 《白巖朴殷植全集》5, 477-479면.

망으로 군주권이 사라지고 망명 이후 신해혁명 결과를 경험하고서 비로소 가능했던 것으로 설명된다. 가령 신해혁명 직후인 1911년 말 집필한 <몽배금태조>에서 루소의 “민약론”과 크롭웰의 “정치혁명”이 있어서 근대서양의 민권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한 것이 그 근거로 주목되었다(배경환, 2003, p.232).

그러나 그가 망명 전에 이미 공화제를 사상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 그는 1907년 국민주권설에 근접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민의 자율적 결사에 의해 국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오늘날 국민은 국사를 담당할 책임과 동시에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군주나 몇 명의 관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동포가 공유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⁶⁾ 그가 가입한 신민회는 1907년 고종폐위 이후 공화제를 추구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그 무렵부터 입헌군주제 지지론도 거의 힘을 상실하였다(이승현, 2006, pp. 67-74.; 김동택, 2010, pp. 111-114.; 서회경, 2012, pp. 49-62.). 신민회와 관련을 맺고 있던 미국 한인사회의 공립협회(共立協會)는 《공립신보》를 통해 1908-09년 공화주의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이것이 국내에 은밀하게 전래되었고 안중근도 읽었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신해혁명에서 만주 황제가 처형되기까지 새 정부로부터 황실이 우대받는 조건으로 퇴위하였다. 따라서 만일 박은식이 망명 이후 중국현실을 보고 비로소 공화제를 수용했다면 <몽배금태조>에서 “군주 전제가 극에 달하자 루소의 민약론이 나타났고” “폭군의 머리를 베어 헌법을 제정”하는 정치혁명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이만열編., 1980, p. 201, 215.). 이는 한역본(漢譯本) 《민약론》(상하이: 文明書局, 1902)을 이미 읽었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견해이다.¹⁷⁾ 그에 앞서 신민회와 관련이 깊은 대한매일신보가 1909년 7월 서양에서는 “입헌공화의 복음이 널리 퍼져”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 되었고” “루소의 자유평등정신이 성취되었다.”는 논설을 낸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¹⁸⁾

그런데 중국 망명 초기에 박은식의 위안스카이 평가는 복잡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는 위안스카이가 이미 종신 총통이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음을 비판하면서도 1914년 1월 미국의 안창호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가 영민한 수단으로 신정에 힘쓰고 있어 수년 내에 혼란이 정돈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의 근거는, 그가 이미 1912년 2월 12일에 무력을 쓰지 않고도 청 황실을 퇴위시키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남방 8성의 난을 진압한 정치적 수완을 주목한 데 있다.¹⁹⁾ 혁명세력이 취약한 조건에서 제정을 무너뜨려 공화정을 건립하고 혁명 직후의 혼란을 신속히 안정시킨 위안스카이의 공적을 인정한 역사가의 안목이

16) <人民의生活上 自立으로 國家가 自立을 成함>, 《西友》8號, 1907; 《白巖朴殷植全集》5권, 362~365면.

17) 인천의 신서 보급소를 통해 1903년 이래 수차례 출간된 《飲氷室文集》과 신간 잡지 등이 함께 유입되었으니 《民約論》도 이 루트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만열, 앞의 글, 90면.

18) <身家國觀念의 變通>, 《大韓每日申報》1909.7.25.

19) <與島山安昌浩書> (1914.1.7), 《白巖朴殷植全集》5卷, 149면.

아닐 수 없다. 배경한은 그의 위안스카이 옹호를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서 나온 현실주의로 이해하였다. 물론 그러하지만 그의 현실주의가 공화제를 파괴하고 제정을 부활시키는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으며, 역시 공화제를 유지하는 한도 안에서 국가적 통일과 단합을 우선시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후 추진된 위안스카이의 제정부활 기도에 그가 반대 입장을 보인 데서 확인된다. 박은식은 입헌군주론자인 캉유웨이(康有爲)를 만나 교류하였고 그의 서문을 게재한 《한국통사》(1915)를 상하이에서 한문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역시 그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파당을 초월한 대동단결을 주의로 삼는 신념의 실천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는 입헌군주파 수령의 서문을 싣고 간행된 통사에서 공화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²⁰⁾ 1915년은 위안스카이의 제제부활(帝制復活) 기도가 절정에 달한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여기에 나타난 그의 입장은 더욱 돋보인다. 만일 그가民国 초 중국의 상황을 보고나서 비로소 공화정을 수용하였다면 중국 정국의 추이에 따라 입헌군주제와 민주공화제 사이를 왔다 갔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러한 중국인과 한국인은 많았다. 이러한 그의 공화제 지지 입장은 1917년 4월 “대동단결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미 중국에서 문명(文名)을 인정받은 박은식은 1921년 10월 상하이에서 중국인에 의해 창간된 《사민보》의 주필로 초빙되었고 거기에 다수의 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군벌통치를 비판하고 민치주의를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배경한, 2003, pp. 257-260). 군벌통치를 종식시키는 힘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병력감축을 촉구하는 국민재병대회(國民裁兵大會)를 비롯한 국민운동에서 나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진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5·4운동을 겪으면서 중국인이 정치적 주체로서 각성된 국민/민중을 발견한 사정을 일정 정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이 박은식은 중국의 민주공화정에 대한 옹호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그가 보기에 중국의 역량은 여전히 취약해 열강의 침략 앞에 위태로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독립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미국에 있던 안창호(安昌浩)에게 1914년 1월 보낸 편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앞길에는 오직 중화대륙이 있어 활동 무대가 되지만 현재 중국이 무력하기 때문에 이에 실망하여 이따금 유럽과 미국으로 달려가는 자가 있지만, 이는 깊은 식견과 밝은 견해가 아니다.”고 하였다. 오히려 현재 중국은 “재력과 무력이 모두 결핍되어” “곤란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동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중국이 “만약 발달하여 힘이 있는 날에는 혹 교만한 마음과 야심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²¹⁾ 국가멸망 과정에서

20) 《韓國痛史》(1915), 《白巖朴殷植全集》1卷, 900면, 1077면.

21) 〈與島山安昌浩書〉(19??:1.12), 《白巖朴殷植全集》5卷, 155~156면. 연도가 불명확하지만 전후 사정으로

기대를 걸었던 미영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강성한 대국이었지만 한국을 돕기는커녕 일본편을 들었으니 그럴만하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대국이 소국에게 일방적 시혜를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대등하게 서로 돕는 관계를 희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주의 안동(安東)에 망명 중이던 이승희(李承熙)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의 성쇠가 한국의 성쇠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중국이 활약하는 날 우리의 장래에도 희망이 생길 것"이라 하여 중국의 흥성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실력을 도모하지 않은 채 오직 타인의 도움만 바라다면 이루는 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²²⁾ 이는 중국 거주 "한인이 이미 100만에 가까운" 상황에서, "부랑(浮浪)한 무리가 중국의 남북에 출몰하여 총통부(總統府)와 각성(各省) 장관에게 금전을 구걸하거나 허황된 말과 유치한 식견으로 분에 넘치는 허영을 얻으려한다"고 사대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한인들을 비판하는 데로 이어졌다. 그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재중 한인의 안목과 식견을 깨우쳐서 중국의 진보를 지지하여 중국인 스스로 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에 나서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가 한말부터 강조해온 자수자강주의(自修自強主義) 원칙 위에서의 한중 연대를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5·4운동을 지난 1920년대 초에도 여전히 분열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 스스로 이를 "당대(唐代)의 번진(藩鎮)과 5대의 16국이 금일에 부활한 듯하다."고 표현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중화민국이 비록 오색기를 국기로 채택하고 오족일가(五族一家)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며 제각각이라고 하였다.²³⁾ 그는 이처럼 중국의 종족적 문화적 다원성에 주목하였으나, 소수민족의 정치적 다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가령, 외몽골이 1911년 말 독립을 선언하였고 중화민국의 부인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1921년 소련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룩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이를 내몽골과 함께 중화민족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연시하였다.²⁴⁾ 그리고 민족간의 소원과 격절 상태가 철도 개통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한족중심의 중화민족 개념을 수용한 결과라 하겠다.

국내정치는 군벌들의 혼전으로 분열돼 있었으니, 박은식은 이를 비판하는 동시에 군벌 지배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는 공화정 수립 이래 민주정치의 주장이 넘쳐났으나 지난 10여년의 중국정치는 오직 "관료정치·무인(武人)정치·당인(黨人)정치"였을 뿐이라고 진단하였다.²⁵⁾ 그리하여 그는 일본에서 정당과 군벌의 정치가 인민

보아 1914년으로 추정된다.

22) <剛齋先生足下> (1914.5), 《白巖朴殷植全集》5卷, 158면.

23) <敦促全國鐵道建設會之進行>, 《四民報》1922.1.8, 1.9, 《白巖朴殷植全集》5卷, 498~499면.

24) 신해혁명 이후 민국 초에 걸쳐 외몽골의 독립과 그에 대한 중화민국의 대응에 관해서는 배경환(2000), <신해혁명 직후 몽골의 독립에 대한 孫文과 혁명파의 대응>, 《人文科學》(성균관대학) 30권 1호 참조.

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어 보통선거운동을 불러일으켰으니 "정당과 군벌의 지배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국 인민도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민중운동으로 신국가의 생활을 조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22~1923년 전국상회연합회와 전국교육회연합회가 공동으로 주도하여 성립된 국시회의(國是會議)는 8개 직업단체의 참여 하에 군인이 성장(省長)을 겸하는 도독제의 폐지와 병력감축, 내전의 종식과 화평통일 등을 촉구하는 국민여론을 결집하여 갔으니 이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사설을 발표하였다.²⁶⁾

당시의 중국 정치 현실에 대하여 박은식이 군벌정치는 물론이고 정당정치에 대해서도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고 정당 대신 민간 직업단체의 민의 결집 노력을 적극 지지한 점이 특이하다. 이는 민국 초 실험된 의회정치와 그 주체인 정당이 군벌의 억압과 회유에 의해 정당의 이념을 버리고 정객화(政客化) 하여 군벌의 들러리로 전락함에 따라 대다수의 중국인이 갖게 된 정당불신 풍조의 시대조류가 반영된 결과이다. 당시 베이징대학 총장 차이위안페이(蔡元培)를 비롯한 사회개혁적 지식인과 혁명가들이 의원·관료·군벌장교를 사회적 기생충이라 여겼던 것은 이런 사정을 보여준다.²⁷⁾ 그래서 차이 총장은 중국청년들에게 이런 기생충이 되지 말라고 호소하였는데, 박은식은 한국 청년들에게도 정당인과 관료가 되려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²⁸⁾

그럼에도 박은식은 끝내 중국이 그 문화적 역량에 의거하여 다시 흥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관료가 되어 축재하겠다는 승관발재(升官發財)의 이기주의를 국가희망을 조장한 민족적 특성으로 규정하면서도 "오늘날 공업계의 정미(精美)한 정도는 구미인에 미치지 못하나 생활에 관한 각종 물품을 모두 자기 손으로 제조하여 타인의 공급에 의지하지 않으며, 자존자대의 습관으로 배외적 행동이 있으나 또한 외래문화를 흡수하는 역량이 있다." 일찍이 인도의 불교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회교·천주교·기독교의 발달이 조금도 장애가 없다 ... 오늘날 과학의 문화도 역시 이와 같이 보급될 희망이 있으니 대륙인민의 전도를 어찌 경시하리오."라고 하였다.²⁹⁾ 대동주의 이념에서 보듯이 '고전중국'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던 균형감의 발로라 하겠다.

25) 〈民力進展之希望〉, 《四民報》1922.2.17., 《白巖朴殷植全集》5卷, 510면.

26) 〈國是會議〉, 《四民報》1922.2.8.; 〈和平統一之希望〉, 《四民報》1922.3.16., 《白巖朴殷植全集》5卷, 505면, 517면.

27) 당시 구역대표로 구성된 중화민국의 국회가 관료·정객·군벌의 들러리로 전락하여 제구실을 못하자 이를 정당정치의 폐해로 간주하여 전혀 다른 원리에 의거한 민의기관 구성론이 대두하였다. 직업대표제가 그것인데, 이 때 관료·의원·군인은 "무직업자"이므로 참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유용태(2011), 《직업대표제, 근대중국의 민주유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5~54면 참조.

28) 〈나의 사랑하는 靑年諸君에게〉, 《獨立新聞》1920.6.17, 《白巖朴殷植全集》5권 481~482면.

29) 같은 글, 553면.

B. 중화민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

이처럼 박은식은 당장의 현실중국에 실망하여 경시하는 천박한 중국으로 보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서 한중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망국 이후의 상황에서는 그런 인식이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베이징을 거쳐 1912년 말 상하이로 옮겨가 혁명과 인사들과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는 신규식 등과 함께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라는 한중연합 단체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천치메이(陳其美)를 비롯한 상하이지역 혁명과 인사들이 가입하였다. 그런데 그는 1914년 1월 안창호에의 서신에서 이례적으로 혁명과는 파괴를 일삼을 뿐 건설에 힘쓰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가 민주공화제를 옹호한 것을 감안하면 위의 비판은 혁명파에 대해 원칙적 지지를 전제로 하는 현실적 비판이라 할 수 있다(배경한, 2003, p. 267.).

그 후 그는 상하이-홍콩-상하이를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중국의 공화혁명파는 물론 입헌개혁파와도 교류를 하는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정계와 사회문화계에서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세력들과 두루 관계를 맺으면서 지원을 얻되 독립 이후 새로 수립할 자국의 공화국체에 대한 신념은 견지하였던 것이다. 허학(虛學)에 정신을 빼앗긴 채 편 가르기에 골몰해온 조선의 당쟁을 국가멸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대동단결을 무엇 보다 우선한 그의 신조를 실천한 결과라 하겠다.

주목되는 것은, 현실중국과의 한중연대는 박은식 스스로 주장하는 연대가 아니라 중국 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연대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은 먼저 《안중근전》(1914)에서 선을 보였고 《통사》(1915)와 《혈사》(1920)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안중근전의 서두에는 모두 7편의 서(序)가 실렸는데 모두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부분의 서는 안중근의 의거를 한국을 넘어 중국과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평가하면서 스스로 분발하고 한인의 독립운동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의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였더라면 중국과 동아 전체가 일본에 넘어갔을 터인데 안중근의 일격으로 이를 면했으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늘 삼한(三韓) 지사들이 계속 중국에 오니 우리는 의에 의거해 도와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공화민국을 다시 삼한 옛 나라(故邦)에 건립하고 우리나라와 함께 동아에 어깨 걸고 일어서도록 해야 안군(安君)의 공로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안중근 의거가 신해혁명을 앞당기는 촉진작용을 하였음을 주목하기도 하였다.³⁰⁾ 한편 과거의 한국을 속국으로 간주하는 의식의 연장선에서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서도 있지만, "한중 양국은 동족으로서 서로 아끼는 정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면서 중국인 판종리(潘宗禮)가 한국의 멸망에 충

30) 羅南山, 〈安重根序〉; 曾鏞, 〈安重根序〉, 《安重根傳》, 《白巖朴殷植全集》3卷, 142면, 151면.

격 받아 인천항구에서 투신자살한 것도 그런 예의 하나로 들었다.

《통사》의 마지막 장 "120인의 당옥(黨獄)"에서 그는 신민회 사건을 다루었는데, 중국 신문의 논설을 인용하여, "장래의 국가는 반드시 공화로 나아가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 슬프다! 중국의 멸망도 목전에 달려있으니 내가 조선의 사정을 보고 중국을 슬퍼하니..."³¹⁾ 라고 일본의 한국 병합을 중국 침략의 전단계로 인식하고 한중 양국 인민이 공동운명에 처해있음을 중국인의 말을 빌려 강조하였다.

《혈사》의 하편 17장 "각국인의 동의"에서 박은식은 중국 각계가 한국독립을 청원·지지하고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네 개의 문건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징메이쥬(景梅九)의 <한국의 최근 사정을 위해 국민에 고함>, <쑨윈과 탕사오이(唐紹儀)의 외교주장: 한인의 독립지지를 제일로 함>, 광둥성국민회의의 <중국인이 한국독립을 승인할 것을 촉구함>, 전국각계연합회의의 <한인을 원조하자고 전국에 전보로 호소함> 이 그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중양국은 순치관계(唇齒關係)이며 산둥/만주 문제는 일본의 한국정책의 확대판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한인의 3·1의거를 계기로 그들이 독립을 성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 독립이 실현되면 산둥문제와 중일 분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를 위해 중화민국 정부는 파리평화회의에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거해 한국독립 문제를 제기해 성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도 위태로워진다. 특히 동맹회 출신 혁명과 언론인 징메이쥬는, 한인이 이번 (3·1) 의거로 "독립의 자격과 자치능력을 갖고 있음을 세계에 알렸고 세계의 우방국민 대다수가 이를 동정하고 있으므로" 중화국민은 이제부터 "한국이 하루빨리 독립을 회복하고 (아시아의) 두 번째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하였다.³²⁾

박은식은 이처럼 현실중국을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지만, 1922년 워싱턴회의 전후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하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다. 그는 회의에서 열강이 중국을 공동 관리한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그 실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8개 협약국의 의결사항 중에 "중국은 본 협약국 중 일국 또는 수국(數國) 또는 제 3국과 본 협약을 위반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사형선고"가 아닐 수 없다면서 "마침내 중국이 보호계급 중의 최하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구심을 토로하였다.³³⁾ 1913년 그가 중미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그것은 공화국 수립 직

31) 《韓國痛史》, 《白巖朴殷植全集》1卷, 1076~1079면.

32) 《韓國獨立運動之血史》, 《白巖朴殷植全集》2권, 586~589면, 592~593면. 景梅九의 본명은 景定成(1879~1949)이며 과거에 합격한 후에 일본에 유학하여 東京帝國大學을 다녔다. 中國同盟會에 가입하여 공화혁명운동을 하는 동시에 1907년 도쿄에서 결성된 東亞同盟會(일명 亞洲和親會)에 가입해 아시아혁명가들과 연대활동도 펼쳤다. 신해혁명 후 제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위안스카이의 황제제도 부활기도에 저항하다가 투옥되었고 위안스카이 사후 비로소 석방되었다. 그 사이 자신의 출신지 산시성(山西省)과 베이징에서 각각 신문을 창간해 언론활동을 펼쳤다. 1920년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서를 썼다. 《民國人物大辭典》,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1, 1142면.

후의 열기에 이끌린 결과로 보이며, 적어도 워싱턴 회의 이후에 이르러서는 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³⁴⁾

《혈사》를 출판한 2년 뒤인 1922년 박은식은 드디어 중국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한중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3·1운동으로 세계 각국에게 우리가 독립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케 하였으니 이를 바탕으로 우리 2천만 민중이 대동단결을 이룩하기만 하면, 우리와 순치관계에 있으면서 일본을 원수로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민족의 충성과 강건한 힘을 감탄하여 도의상 원조를 줄 것은 필연”이라고 하였다.³⁵⁾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국망 이전 그의 한청일 3국연대론이 한일병합과 신해혁명 이후 한중연대론으로 축소되었다가 이제 한중러 3국연대론으로 바뀌었으며, 그 연대의 전제가 우리민족의 대동단결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신3국연대론은 1925년 인도까지 포괄하는 4국연대론으로 확장되었다. 1925년 10월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사임하면서 발표한 <독립운동의 대방침을 덧붙여 논함>에서, 그는 중국인민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우리와 같고 러시아는 일본제국을 파괴할 계획을 은밀히 실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강자에게 압박 받음이 동병상련이므로 그들은 모두 “우리의 후원(後援)”이라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반드시 중국의 4억 인민, 러시아의 1억 5천만 인민, 인도의 3억 인민과 연합적 행동이라야” 성공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인민의 애국운동을 보라. 국권회복 열기로써 세계 평등의 주의를 실현코자 하므로 각국인의 동정이 많도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³⁶⁾

1922년 이래 그가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연대를 강조한 것은 소련이 코민테른을 통해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한 사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23~1924년 쑨원의 지도하에 소련과의 연대정책 위에 추진한 1차 국공합작과 국민혁명운동의 열기를 반영한 정세인식이라 하겠다. 이 때 그가 인도를 연대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바로 1919~1922년 인도 국민회의가 간디의 지도하에 비폭력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 민족운동으로 발전시킨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4국연대론은 대국중심의 사고경향도 보여주지만, 인도를 포함시켜 동아시아 범위를 훌쩍 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33) <嗚呼中國竟落於保護階級矣>, 《四民報》1922.1.6, 《白巖朴殷植全集》5卷, 496면.

34) “동반구의 선진공화”인 중국은 “서반구의 선진공화”인 미국과 독립, 자유,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므로 동맹을 맺으면 “안으로 공화를 공고히 하고 밖으로 세계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嘯印, <論中美同盟之必要>, 《香江雜誌》1號, 1913, 배경한 앞의 글(2003)의 부록. 인용문은 324면, 329면.

35) <早速悔改하여 大同團結에 努力하라>, 《獨立新聞》1922.6.24, 《白巖朴殷植全集》5卷, 531면.

36) <獨立運動의 大方針을 附陳함>, 《獨立新聞》1925.10.21, 《白巖朴殷植全集》5卷, 578면.

IV. 근대 한중관계 속의 '역사중국' 인식, 1882~1894

한중관계에서 1882-94년은 청국이 조선을 이전과 달리 국제법상의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기도를 펼치던 시기이다. 20세기 초의 시점에 살던 한국인은 대부분 전통적 존화주의 시각의 연장선에서 친중화반일(親中華反日)의 이분법적 대외인식에 젖어있어 이러한 청국의 정책을 냉정하게 직시하기 어려웠다. 당시 박은식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자.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한 1905년 이후, 박은식에게 1884-94년의 청국은 시간적으로는 가까웠지만 '현실중국'이라기보다 '역사중국'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첫째, 책봉조공에 의거한 한중관계가 1899년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조약관계로 바뀌었다. 둘째, 한국의 멸망과 중화민국 건립으로 전통적 국체가 역사화되었다. 셋째, 동아시아에 존재하던 국제질서의 이중기준, 곧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관계와 조약관계가 조약관계로 일원화되었다.

박은식이 근대 이전의 전통적 조선-청국관계를 다룬 글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06년 <독립성질>이란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이 조공관계 속에서도 자유독립을 유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한인이 어찌 일찍이 독립정신이 없었겠는가. 그 사회의 권력이 정부의 압제로 꺾여서 비록 독립사상이 있어도 그 독립의 실력을 발표하지 못했을 뿐이다 ... 한국이 청에 굴복한지 300년이지만 청은 정치·언론을 이 나라의 자유에 맡겼고 학사/대부의 언론/문자도 청에 불복하는 뜻이 완연하였다."³⁷⁾

여기서 말하는 조공관계 속의 '자유독립'이 대등관계를 전제한 것은 아니며 박은식도 이를 직시하였다. 망명 직후 1911년 환인에서 집필한 <천개소문전>과 <몽배금태조>에서 그는 시기에 따라 한중관계가 달라졌음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구려, 신라, 고려는 당·몽골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그에 의뢰하거나 그 침략을 받기도 하였지만 독립·자위·자강의 기풍으로 대응하였다. 다만 "조선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부용(附庸) 대우를 받아 평등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았다.³⁸⁾ 이런 불평등한 관계는 중국과 한국간 국력의 거대한 비대칭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인식은 개항기에 구미열강과 일본의 질문에 답하면서 청국 예부(禮部) 및 총리아문이 밝힌 조청관계와 일치한다. 박은식은 1915년 한국통사 1편 12장 "清廷이 우리나라의 자주외교를 인정함"에서, 1878년 일본이 청국 예부에 조선이 그 속방인지를 문의하자 이에 답하여 말하기를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을 엮드려 섬겼으나(服事) 정령은 모두 스스로 다스

37) <獨立性質>, 《大韓每日申報》1906.6.6.

38) <泉蓋蘇文傳>; <夢拜金太祖>, 李萬烈編, 앞의 책, 173~174면, 206면.

려 왔고 그 자주국가란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답했음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근대 이전 전통적 조청관계의 실상이며 박은식도 이러한 사정을 《통사》에서 누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1882년 이후 청국의 조선 정책은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박은식도 이를 날카롭게 파악하여 드러냈다. 한국 최초의 체계적인 근대적 역사저술로 평가되는 《한국통사》(1915)에서는³⁹⁾ 국망의 제1원인은 정부와 관리들의 탐학으로 내란이 조장된 데 있으며 제2의 원인은 내란에 편승한 청·일 양국의 간섭에 있다고 보았다. “청·일의 간섭이 한국의 내란을 부채질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오년/갑오년의 내란은 모두 관리의 탐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⁴⁰⁾ 즉 관리의 탐학이 없으면 내란이 없고 내란이 없으면 청·일의 개입도 없을 터인데, 청·일의 개입은 그가 중시하는 자수자강을 억압하였으니 그것이 국망에 끼친 영향은 내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중 청의 간섭에 대한 박은식의 인식은 요컨대, 고종친정 이래 망국에 이르는 동안 대원군만한 지도력을 가진 위정자가 없었는데 그가 임오군란 이후 재기할 기회가 있었으나 청국이 위안스카이로 하여금 두 번이나 개입하여 꺾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대원군 정권 하에서는 내란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다.

박은식이 대원군에게 이처럼 개혁군주의 역량을 인정하고 기대를 건 근거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 대원군이 시무를 모르고 쇠국하여 대세를 거역하였다고 탓하지만 그 후의 위정자들의 죄가 더 심했다”는 것이다. 대원군 집정기에는 세계대세를 아는 자가 적어서 부득이한 면이 있었으나 그 후의 시대에는 “개국하여 각국과 통교함에 이르러 시무를 아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이를 업신여기고 탐하고 즐기만 하였으니 그 죄가 몇 갑절 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대비하였다.⁴¹⁾ 결국 1863~1910년 국망 과정에서 대원군만한 지도력을 가진 위정자가 없었고, 위안스카이와 청국은 대원군의 재기를 두 번이나 가로막고(임오군란 직후, 청국의 바오딩부(保定府)로부터 환국한 직후) 국내 수구세력의 득세를 조장한 구실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⁴²⁾ 그러므로 1911년 <몽배금태조>에서, 그가 “대개 50년 전부터 일본인이 조선을 침범하였거늘 이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존화(尊華)를 논하였으니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한가”라고 존화파를 비판한 것은 당연하다. 그는 그 이전의 조선의 학인들 스스로 중국사서인 《십팔사략》과 《자치통감》을 교과서로 삼아 이를 암송할 뿐 제 나라의 역사

39) 군주와 신하가 아닌 民人大衆을 주체로 하여 사건사 중심의 서술체계를 세우고, 인과관계에 입각한 설명방법을 취한 점 등이 근대적 역사학의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박은식, 김태웅 역해, 2012, 《한국통사》, 아카넷, 15~17면.

40) 《韓國痛史》, 《白巖朴殷植全集》1卷, 785면.

41) 《韓國痛史》, 《白巖朴殷植全集》1卷, 764면.

42) 《韓國痛史》, 《白巖朴殷植全集》1卷, 783면, 785면, 799면. 대원군의 ‘쇄국적 개혁’ 리더십으로 당시의 내외위기를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수자강의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는 긴급한 과제를 앞에 둔 박은식의 그에 대한 기대는 당시 조건에 의거한 역사주의적 판단의 소산이라 하겠다.

를 공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예정신과 노예학문이 만연한 결과 존화 풍조가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⁴³⁾

한편 박은식은 이를 근거로 반중화(반청)친일의 노선을 취하기는커녕 그런 노선에 의거해 조선의 독립을 지키려 했던 급진개화파를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급진개화파가 “청국을 배제하고 독립한다면 원조할 것을 허락하겠다”는 일본의 꼬임에 빠져 일을 그르쳤는데, “실상은 한국과 중국을 도발시켜서 서로 나쁜 감정을 깊게 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데서 나온 술책”이었다.⁴⁴⁾ “일본은 병자 통상 이래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청국이 한국 배후에서 감시하고 조청양국 관계가 역사상, 지리상, 종족상 인민 감정상 단단히 응결돼 있어서 그 근거를 풀지 않는 한 비록 일본이 백 개라도 간여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였다.⁴⁵⁾ 청국이 1882년 이래 조선 내정에 간섭하여 자강개혁을 방해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반청친일 외교 노선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박은식은 한일병합 때까지 한청일 3국 연대론을 견지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열강은 동아3국연대를 우려하면서 은밀하게 분열시키려 기도하였고 이에 일본이 적극 나서 “정한론(征韓論)”의 미명 하에 조선 침략을 실행하였다.⁴⁶⁾

박은식은 자강주의의 원칙 위에서 내란은 스스로의 군대로 다스리고 자주외교를 통해 3국연대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공관계 속에서도 조선이 청국의 군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직전 그는 서울에 머물던 중 차병(借兵)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당국자에게 “동학도는 오합지중이라 관군이 진압할 수 있거늘 중국에 청병(請兵)하면 텐진조약에 의거해 일본도 파병하겠다고 할 터인데 양국 군대를 불러들이게 되면 우리나라를 무사히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슬프다! 불행하게도 적중하고 말았다.”고 슬회하였다.⁴⁷⁾

청일 개전 후 청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는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청국 정부의 안이한 외교정책, 해전에서의 지휘체계의 문란을 지적한 후 육전에서도 평양전투는 청국 장수의 오만함과 병사의 노략질 때문에 패한 것으로 보았다.⁴⁸⁾ 물론 박은식은 전쟁의 막바지에 이

43) 〈夢拜金太祖〉, 李萬烈編, 앞의 책, 188면, 184~185면.

44) 《韓國痛史》, 《白巖朴殷植全集》1卷, 792면.

45) 《韓國痛史》, 《白巖朴殷植全集》1卷, 1056면.

46)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끌어들이어 동아3국의 단결을 이간시킴으로써 3국 연대에 의거한 저항을 차단하려 기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조선침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종용한 것은 신미양요 이래의 미국이다. 1872년 미국무장관 피쉬(H. Fish)는 주일공사 드롱(C. E. Delong)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렸고 드롱이 전 廈門주재 미국영사 르젠드르(Le Gendre)를 일본 외무성 고문으로 추천하였는데, 일본의 征韓外交는 사실상 그의 자문 하에 실행되었다. 曹中屏(1993), 《朝鮮近代史, 1863~1919》, 北京: 東方出版社, 40~41면.

47) 《韓國痛史》, 《白巖朴殷植全集》1卷, 809면.

르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장수들이 일부 있었음을 간과하지 않았지만, 청국의 패망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하였다.⁴⁹⁾

이상과 같은 1882~1894년 청국의 조선정책에 대해 박은식은 그 성격을 명확한 개념어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요즘에는 제국주의/식민주의 등의 사회과학적 개념어로 설명하는 견해들이 나와 있지만 당시에는 량치차오(梁啓超)의 “보호국”이라는 설명이 거의 유일했다. 그는 1902년 《리홍장전》과 1904년 〈조선망국사략〉에서 조선은 1884~1894년 헨진조약으로 “중일공동보호국”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梁啓超, 박희성 譯, 2013, p.163; 최형욱 編譯, 2014, p. 16.) 소국 일본이 조선에 대해 청국과 대등한 파병권을 갖게 됨을 중시한 견해이다. 이는 그 후에 중국에서 널리 인정되어 민국 초기 역사교과서에도 수용되었다(유용태, 2015, p. 217.). 량치차오의 글이 당시 한국 지식인에게 미친 영향은 다 아는 바이거니와 박은식도 이 글을 읽었을 터이나 조청관계에 관한 량치차오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청국 파병군의 주장 위안스카이의 내정간섭이 자수자강을 저해하였음을 강조한 박은식의 문제의식은 량치차오의 그것과 상통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이한 것은 한중간 최초의 평등조약인 한청통상조약(1899)에 대하여 《통사》나 《혈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국망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는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이란 면에서, 그리고 국망 이후 그가 줄곧 추구한 한중연대를 위해서도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V. 맺음말

박은식이 본 ‘현실중국’의 ‘국가’는 청국이든 중화민국이든 관리의 탐학과 이를 틈탄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 및 침략으로 분열·혼란·빈곤에 처해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그 ‘사회’는 발분하여 구국을 완수하려는 각계의 노력에 의해 활력을 회복해 가는 추세여서 믿고 기대할만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그는 중국이 오랜 세월 키워온 문화적 역량에 의거해 희생할 것을 믿었다. 그리하여 시종일관 중국을 반제항일연대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박은식의 이같은 중국인식은 일본의 한국병합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그가 본 한중관계에서의 ‘현실중국’을 대하는 한인의 자세는 시종일관 자수자강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었다.

48) 《韓國痛史》, 《白巖朴殷植全集》1卷, 830~831면.

49) 《韓國痛史》, 《白巖朴殷植全集》1卷, 847면.

그래서 그는 일부 한인들의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와 사대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유학자 출신으로서 존화사대의 디엔에이를 체득했을 그가 이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균형추로 삼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1882-94년 청국이 조선을 종속국화 하려는 정책을 펼쳐 조선의 자수자강을 억압하였음을 직시하고 비판한 데서 드러난다. 그와 반대로 '현실중국'의 쇠망 징조에 실망하여 일본이나 구미에 의지하려는 자세를 보인 한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가 청국이든 중화민국이든 중국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연대대상으로 중시한 것은 '고전중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제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가 이런 입장을 확립하고 견지하게 만든 이념적 기초는 공자의 대동주의와 맹자의 민위중설(民爲重說)을 핵심가치로 하는 대동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한 '현실중국'은 전제군주제 중국이 아니라 민주공화제 중국이다. 그는 청말 입헌군주제 개혁과정에서부터 2세 국민의 양성자인 여성의 근대교육과 "하등사회"의 문명개화가 자수자강의 기초임을 강조하였고, 중화민국의 민주공화제가 군벌·관료·정객들에 의해 시련을 겪는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부녀와 어린이를 민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시종일관 민주공화제 지지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5·4운동 이후에도 중국이 민주공화제의 내외 장애물인 군벌과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쇠망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1차 국공합작과 국민혁명에 의해 주권회복과 민주공화의 실질을 채우는 활력이 나타남을 예의 주시하고 기대를 걸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그는 한중러 신3국동아연대론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거기에 인도까지 포함하는 4국연대론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일 병합 이전 그가 지지한 한중일 3국연대론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확장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베트남 대신 먼 인도에 주목한 데서 보이듯, 그의 4국연대론 속에는 대국 중시의 경향도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다만 한국과 인도의 국가가 멸망한 이후의 3국/4국 연대론은 엄밀히 말해 국가간이 아니라 민족간의 연대론이라 해야 합당할 것이다. 국가가 망해도 역사를 가진 민족이 있는 한 그 국가는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박은식이 본 '역사중국'의 예로서 1882~1894년 한중관계에서의 중국은 한국의 자강개혁을 저지한 외세로 인식되었다. 특히 위안스카이가 대원군의 집정으로 국운을 회복할 기회를 두 번이나 무산시킨 점을 크게 통탄하였다. 동시에 그는 이런 개입을 유발한 내인이 우리 내부의 존화적 자세에 있음을 성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시기 한중관계의 성격에 대해, 박은식이 한마디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사구조와 문맥상으로 보아 전통적 조공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개입이었고 그 개입이 조선의 자수자강을 저해하였다는 시각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역사중국'을 염두에 두고 다시 '현실중국'과의 연대론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왜

한국의 자수자강과 그것을 위한 혁신(처음엔 개혁에서 후에는 혁명으로 나아감)을 한중연대의 필수전제로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중국에 대한 한인들의 존화적/사대주의적 행태를 비판하는 까닭도 다른 데 있지 않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치관계에 놓여있다. 양국의 규모가 너무나 현격한 비대칭의 관계이므로 그런 차이를 인정한 위에서 어떻게 자주독립을 지켜갈지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관건일 터이다. 박은식은 자수자강 위에서의 연대야말로 그 출발점이자 근간이며 이 연대는 소수 유권계급(有權階級) 위주의 연대가 아니라 그가 견지한 민주공화의 주체로서의 전민의 연대라고 말해주고 있다.

박은식의 대동단결론과 자수자강주의에 의거한 중국인식과 4국연대론은 오늘날 미일동맹과 G2중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한국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중무역액이 이미 2012년 한-미일무역액을 초과한 현실에서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외교적으로도 균형 감각이 절실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단결과 자강이 필수적 전제인데, 남북관계의 개선이야말로 그 출발점이며,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일변도 외교' 전통/관성에 대한 자성을 필요로 한다. 이전의 외교상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롭고 폭넓은 다자관계의 연대를 추구한 그의 안목이 돋보이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民國人物大辭典》,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1.
 《朴殷植全書》上中下,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白巖朴殷植全集》全5卷, 서울: 동방미디어, 2002.

- 《大韓每日申報》
 《大韓自強會報》
 《獨立新聞》
 《四民報》
 《西友》
 《安重根傳》
 《韓國獨立運動之血史》
 《韓國痛史》
 《香江雜誌》
 《皇城新聞》

2. 연구논저

- 강만길 (2003). **고쳐 쓴 한국 근대사**. 서울: 창비.

- 김도형 (1995).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민두기(1985). **중국근대개혁운동의 연구**, 일조각.
- 박은식 (2012). **한국통사** (김태웅 역해). 서울: 아카넷.
-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서희경 (2012). **대한민국헌법의 탄생: 한국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서울: 창비.
- 신용하 (1982).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용태 (2011). **직업대표제, 근대중국의 민주유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만열 (1980). **朴殷植**. 서울: 한길사.
- 梁啓超 (2013). **리홍장평전** (박희성 역). 서울: 프리스마.
- 曹中屏 (1993). **朝鮮近代史, 1863~1919**. 北京: 東方出版社.
- 최형욱 (2014). **梁啓超,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서울: 글항아리.
- 김기승 (1987). 백암 박은식의 사상적 변천과정: 대동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14.
- 김기승 (2010). 박은식의 민족과 세계인식. **한국사학보**, 39.
- 김동택 (2010). 대한제국기 근대국가형성의 세 가지 구상. **21세기정치학회보**, 20(1).
- 노관범 (2013). 대한제국기 황성신문의 중국인식. **韓國思想史學**, 45.
- 배경환 (2000). 신해혁명 직후 몽골의 독립에 대한 孫文과 혁명파의 대응. **人文科學** (성균관대학), 30(1).
- 배경환 (2003). 중국망명시기(1910~1925) 朴殷植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香江雜誌', '國是報', '四民報'의 분석. **東方學志**, 121.
- 백영서 (2000). 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시아의 귀환**. 서울: 창비.
- 유용태 (2006). 환호 속의 경중: 전장 中國에서 본 러일전쟁. **환호 속의 경중**. 서울: 휴머니스트.
- 유용태 (2015a). 四夷藩屬을 中華領土로: 民國時期 中國의 領土想像과 동아시아 인식. **東洋史學研究**, 130.
- 유용태 (2015b). 현재에 이르는 길과 가능성의 유산을 찾아서: 한 중국사연구자의 자기인식. **歷史學報**, 228.
- 이만열 (1996). 개화기 언론과 중국: 梁啓超를 중심으로.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정진석 외). 서울: 민음사.
- 이승현 (2006). 新社會의 국가건설사상: 공화제를 향하여. **정신문화연구**, 102.
- 정문상 (2004). 19세기말 개화지식인의 동아시아 지역연대론. **아세아문화연구**, 8.
- 한기형 (2005). 근대 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 **대동문화연구**, 50.
- 현광호 (2009). 朴殷植의 동아시아 인식. **白山學報**, 83.

유용태 (yyt@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현대사와 동아시아 근현대사,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임.

